

오피니언

다산포럼

이승우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을 빔에 따르면... 지하실과 2층으로 된 좋은 집의 주인... 지하실에서 지내기를 더 좋아하는 존재라고 비판다.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공전 열의 헛간과 같은... 지하실과 2층으로 된 좋은 집의 주인... 지하실에서 지내기를 더 좋아하는 존재라고 비판다.

열 개의 방에서 잠자기

생각할 것이다. 사상가의 그럴듯한 사상... 지하실과 2층으로 된 좋은 집의 주인... 지하실에서 지내기를 더 좋아하는 존재라고 비판다.

더러도 즐기지 못하면 부여되어 있지... 유대 율법에 희년이 되면 노예를 해방하는 제도가 있었다.

'지내' 일이다. 거기서 지내지 않는다면... 유대 율법에 희년이 되면 노예를 해방하는 제도가 있었다.

〈조선대 교수·소설가·다산연구소 제공〉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현대·기아차 여수 박람회 지원 기대 크다

현대·기아차그룹이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두 팔을 벌여붙이고 나섰다. 이달 중에 유치지원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그룹 차원의 지원계획을 세워 전방위적인 유치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기아차 그룹 차원의 지원은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 세계 190여 개 국에 나가 있는 해외법인과 대리점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면 유치를 위한 대외활동과 홍보 역량을 배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고무적인 일은 현대·기아차의 지원이 2002년때 보다 훨씬 강하다는 점이다. 세계박람회기구(BIE) 사무국이 위치한 프랑스 파리에 별도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BIE 회원국

주요인사들을 초청, 여수세계박람회 준비상황 등을 수시로 소개하는 등 그룹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2002년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결의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세계박람회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행사'로 꼽힌다. 그럼에도, 여수세계박람회는 과거 올림픽과 월드컵을 유치할 때는 물론이고 평창 동계올림픽의 유치 준비와 비교해도 부족한 점이 많다.

세계박람회는 올림픽과 같은 국가적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범국민적인 관심과 정부의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박람회 개최 결정이 10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외교력을 총동원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효과적인 국내외 홍보활동도 눈에 띄지 않는다.

세계박람회는 올림픽과 같은 국가적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범국민적인 관심과 정부의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박람회 개최 결정이 10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외교력을 총동원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효과적인 국내외 홍보활동도 눈에 띄지 않는다.

정치권 '민생법안 처리' 약속 지켜라

2월 임시국회가 파행을 빚고 있다. 정치권은 주요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국회를 소집했지만 회기를 하루 앞둔 5일, 한나라당의 의사일정 거부로 본회의조차 열리지 못해 법안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치권의 모습은 한심하다. 노무현 대통령의 탈당으로 집권여당이 사라졌지만 국정운영을 책임지게 운영하려는 정당은 없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주자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의 처리를 약속했다. 하지만 결과는 '혹시나'에서 '역시나'가 될 것 같다.

민생국회를 약속한 만큼 대화와 타협을 통해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정치권의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국회에는 지금 주먹박과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수많은 민생법안이 계류돼 있다. 그런데도 서로의 주장만 고집하며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계정을 주먹박과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다른 민생법안 처리와 연계하고 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다른 정당들의 협조를 얻거나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사학법이 민생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 원내 제 1당인 한나라당은 국정운영에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열린우리당과 사학법 재계정에 합의했다고 하지만 민생법안과 연계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열린우리당도 성의를 보여야 한다. 개방형 이사 추진 주체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 사학법 문제는 일련된 합의사항이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정당정치는 있을 수 없다.

정치권은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할 것이다. 정점이 되고 있는 사학법은 협상을 통해 추후 재계정하면 된다. 정치가 민생의 발목을 잡아서 국민들만 피곤하고 정치권의 공멸을 초래할 수 있다.

無等鼓

골프 예기를 하다 보면 가끔 '움직이는 공도 때리는데 정지한 공을 제대로 치지 못하느냐'는 식의 핀잔을 듣는다. 물론 그렇게 큰 소리치는 사람들은 예외없이 골프 문화의 초보자들이다. 골퍼들은 정지한 공을 치는 것이 아주 쉬워 보여 맞추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수없이 고개를 떨쳐야 했다. 승부차기와 골프샷에는 단순히 물리학으로 풀 수 없는 큰 변수가 있다. 바로 심리에 대한 두려움이다. 자신감 없는 키커들은 공을 제대로 치지 못할 것 같고, 골퍼들은 골프공을 엉뚱한데로 보내거나 뒤꿈치 칠 것 같은 기분 나쁜 상상을 하는데 결국 근육은 그대로 움직이고 만다.

즐거운 상상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축구의 승부차기는 어떻게 볼까. 골키퍼와 11m 떨어진 거리에서 22m 이상의 속도로 차는데 공이 골라인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0.55초, 골키퍼가 오는 공에 반응하는 시간은 0.66초다. 공을 잡으려 하면 벌써 지나간 뒤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한국인 프리미어리그 4호 이동국(28)이 데뷔전 골을 넣을 수 있는 찬스에서 골대를 맞힌 뒤 두 번째 경기 승부차기에서도 골대를 맞히는 손맛을 봤다. 경기 후 그는 "승부차기에 들어서면서 자꾸 골대를 맞힐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 털어놓았다.

과확력 분석만으로는 승부차기 성공률은 100%다. 따라서 승부차기는 무조건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천하의 펠레, 마라도나, 베컴도 승부차기 실축으로

타이거 우즈는 지독하게 연습한 후 실제경기에서는 멋진 샷의 궤도를 그리며 즐거운 상상을 한다고 한다. 이동국도 더 열심히 훈련하되 그라운드에서는 골장면을 그리는 여유를 찾길 바란다. /기현호 체육·여론대부장 khh@

NGO 칼럼

이찬



금년이 6월항쟁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6월항쟁 이후 시민운동은 급격한 성장을 하였고,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생겨나서 활동을 하고 있다.

전국 메스컴을 장식하는 거대한 이슈에 매몰되지 않고, 시민들 생활 속의 작은 문제를 찾아서, 이를 개선시키기 위한 운동이 필요하다.

시민운동 '프로슈머' 시대 열어야

엘리트층은 최근 'Revolutionary Wealth' 부의 미래'에서 미래의 부는 Producer(생산자)와 Consumer(소비자)가 합해진 Prosumer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시민운동의 부도 Prosumer로부터 나온다고 생각된다.

시민들이 스스로 시민운동의 주제와 아이템을 정하고,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실천함으로써 스스로 만족감과 행복을 찾는 시대를 열어야 하는 것이다.

비버의 집짓기. 비버는 집짓고 댐 만드는 동물로 유명하다. 어린 시절 즐겨 본 동화책이나 만화책 속에도 비버는 부지런히 나무 집짓는 동물로 그려져 있던 기억이 난다.

독자마당

놀이 시설 마련한 식당, 어린이 안전까지 고려해야

최근 자녀를 데리고 오는 고객들을 감안,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 시설을 마련한 식당이 많다. 그런데 놀이 기구를 들여놓으면서 세심한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

가나 딱딱한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아 놓는 식이다. 설치만 해놓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이왕이면 매일 청소하고 어린이들의 손이 닿는 장난감은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장애인들도 편하게 다닐수 있는 도로환경 만들어야

얼마전 장애인 인도의 율곡 패인 곳에 빠진 비버 때문에 전동 휠체어를 움직이지 못해 애쓰는 광경을 봤다. 그 장애인들은 "인도는 높은 턱, 각종 장애물 등등에다가 부실시공까지 많아 차라리 차도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며 "인도의 보도블럭이 울퉁불퉁해서 오히려 차도보다도 위험하니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차도로 다니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차도로 가는 장애인들을 볼 때마다 "왜 교통 사고 위험도 높은데 인도로 가지 않을 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제야 전동 휠체어를 탄 채 차도를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장애인들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었다.

▲유지호·목포시 촉박동

Table with publication information for Kwangju Ilbo, including contact details,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